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최용준 (한동대학교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논문 초록

본 논문은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고찰이다. 네덜란드는 칼빈주의가 신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면에 적용되었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도 네덜란드의 가장 전형적인 국민성인 무역정신(Handelsgeest)은 부존자원이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였으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고 기후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17세기에는 황금시대를 구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유럽, 북미주 및 글로벌 차원의 기업가정신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은 양자의 상관관계를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황금시대에 칼빈주의의 역할을 고찰하고 유럽과 북미주에서 볼 수 있는 칼빈주의적 기업가 현황을 개괄한 후 이에 관해 언급한 막스 베버의 명제를 재검토하겠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가운데 칼빈주의적 영향이 어느 정도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칼빈주의, 네덜란드, 기업가정신, 막스 베버, 직업윤리

I. 서론

필자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학업 및 연구를 위해 1989년에서 1998년까지 거의 10년간 머문 네덜란드는 두 가지로 매우 유명하다: 하나는 칼빈주의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정신 또는 국제무역정신(네덜란드어로 Handelsgeest)이다. 전자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려는 네덜란드의 신앙적 역사와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17세기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상황 및 현재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네덜란드의 세속적인 위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전자는 매우 거룩하게 보이고 후자는 다소 세속적인 것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국제기업가정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서 본인의 가정은 매우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1588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억압에서 독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황금시대이후 현재까지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규범적인 방향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비록 국토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국제적인 기업이 많은 점에서 실제로는 매우 큰 나라이기도 하다.¹⁾

1)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Deo Volente*)」 (서울: 아침향기, 2011)이라는 칼

필자의 가정이 맞는지 알기 위해 먼저,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여기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 칼빈주의가 네덜란드 공화국의 주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칼빈주의를 네덜란드에 소개했는지 그리고 스페인에 대항하여 80년간 독립 전쟁을 하는 동안 칼빈주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나아가 그 이후 안트베르펜 및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개신교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로 칼빈주의와 황금시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16세기 말에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물론 네덜란드의 무역, 산업, 예술 및 과학에 공헌한 다른 요소들도 있다. 가령 나무를 자르는 풍차를 발명하여 전 세계를 향해할 수 있는 선박을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나아가 전 세계 향해 지도를 만들어 국제 무역을 독점하였다. 1602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다국적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주식 시장 제도도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아시아 무역에서 2세기 동안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17세기에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급증하는 무역에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은행이 1609년에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거의 개신교도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칼빈주의와 이러한 발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 후에는 칼빈주의와 네덜란드 및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계 기업가정신을 각각 고찰 하겠다. 미국에 관해서는 주로 미시간 서부 지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하였고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계 기업가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피터 에스터(Peter Ester)가 출판한 책을 다룰 것이다(Ester, 2012).²⁾

다음에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의 저명한 책인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을 간략히 다루겠다 (Weber, 1934). 이 책에서 베버는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노동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빈주의가 경제적 이득을 도덕적이고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얻는데 헌신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획, 열심 있는 노동 그리고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는 자기 부인을 격려하는 신앙적 교리의 부산물이었다. 가톨릭과 같이 종교적 권위로부터 받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베버는 개신교도들이 구원받았다는 다른 “사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베버는 칼빈주의가 개개인이 세속적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해야 하며 돈을 낭비하는 것을 금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베버의 명제가 과연 네덜란드 상황에서도 타당한지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동일한 명제가 한국 상황에도 발견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던 기간과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기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주의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논의 후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²⁾ 립집에서 네덜란드를 다루며 소제목을 ‘작지만 큰 나라’라고 불렀다.

II.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1. 역사적 배경

칼빈주의는 기도 드 브레스(Guido de Bres: 1522-67)가 1550년대 네덜란드 남부 지방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네덜란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 1566년 50여명의 칼빈주의 설교자들이 교회의 개혁 운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에서 네덜란드로 왔다. 그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의 엠덴(Emden) 지역에 있던 네덜란드 개신교 피난민들이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 운동을 본격화시켰다(Israel, 1995: 101-05). 그러자 유명한 성상 파괴 사건(Beeldenstorm: Iconoclastic Fury)이 일어났고 개혁운동은 더 확산되었다(Crew, 1978).

프랑스어권의 개혁교회는 1554년 안트베르펜(Antwerpen 불어는 Anvers)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1년 후에 네덜란드어권의 교회가 설립되었다(Pettegree, 2000: 347). 그 후에 산업이 발전한 소위 플랜더스 서쪽 지방(Westkwartier)이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칼빈주의는 이미 1560년경에 하나의 대중 운동이 되었다(Pettegree, 2000: 347-49). 1561년에 드 브레스가 작성한 벨직 신경(Confessio Belgica)이 1566년에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북부 지역에 조직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Pettegree, 2000: 348). 그러나 스페인의 전제군주 필립 2세가 보낸 알바 공이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상인들과 기업가들이 안트베르펜, 암스테르담(Amsterdam), 투르네(Tournai, 네덜란드어로는 Doornik) 및 다른 도시들로부터 떠나 다른 국가들의 칼빈주의자들과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Pettegree, 2000: 356). 가령 안트베르펜이 필립 2세에 의해 1585년 정복되자, 전문 기술자들과 부유한 상공인들로 구성된 개신교도들은 북쪽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작은 항구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은 1630년에 일약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1685년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낭뜨 칙령(L'édit de Nantes)이 철회되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Huguenots)도 네덜란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상공인들과 뛰어난 과학자들이었다. 이들 또한 네덜란드에 칼빈주의를 꽃피울 뿐 아니라 실크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인 황금시대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Israel, 1989: 352-53).

이렇게 하여 비록 칼빈은 한 번도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곳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환영을 받게 된다. 까를라 아펠로(Karla Apperloo) 또한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가 자란 것은 16세기에 스페인에 대항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정교분리를 믿었기 때문에 독립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어떤 상황에서는 정부에 저항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가톨릭이나 루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³⁾

그 후 18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의 정치가요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이러한 칼빈의 사상을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는 이름으로

3)

http://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_-The-_most-Calvinist-nation-in-the-world__14301.html 2013년 7월 2일 오전 8:49에 검색함.

부활시켜 칼빈주의를 단지 신학 사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삶의 체계로 이해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목사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가로서 일간 및 주간 신문(De Standaard, De Heraut)을 창간하여 주필로 활동하였고 1880년에는 암스테르담에 칼빈주의적 대학인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총장 및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나중에는 정치에도 입문하여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의 지도자로 일하다 1900년부터 5년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사회 전반에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규정을 잘 지키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칼빈주의적 특성을 가진 나라로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⁴⁾ 얼마 전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카이퍼를 이은 칼빈주의자인 얀 뵘뻬 발켄엔데 (Jan Peter Balkenende)도 네덜란드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칼빈은 사회에 이러한 도덕적 기본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교훈들은 현대에 더욱 적절하며, 욕심, 돈과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야기된 최근의 경제 위기는 다시금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⁵⁾

1980년대에 들어와 네덜란드 사회는 한동안 일요일에 쉬는 규정이 느슨해지는 등 칼빈주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러한 소량의 마약 소지 및 매춘이 허용되던 자유주의와 관용성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보수주의로 회기하는 경향도 있다. 가령 로드베이크 드로스(Lodewijk Dros)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7만 명의 자원자들에게 4개월간 칼빈주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중 56퍼센트가 칼빈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혔다.⁶⁾

2.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

80년이나 걸린 독립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네덜란드는 164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는 공화정을 채택했다는 점이다(Israel, 1995). 칼빈주의는 이 독립전쟁 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체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제는 17세기에 황금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⁷⁾ 그러므로 칼빈주의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공화국이야말로 최초로 근대적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국가라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Hyma, 1938: 325) 이 사실은 에른스트 바인스(Ernst Beins)가 최초로 지적했다(Beins, 1931: 81-156). 하이마는 17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반면 독일은 매우 가난했다고 지적한다(Hyma, 1938: 338). 나아가 샤마는 당시 루이 드 기어(Louis de Geer)라는 한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4) Ibid.

5) Ibid.

6) Ibid.

7)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Simon Schama,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New York: Alfred Knopf, 1987) 및 Nelleke Noordervliet, *Nederland In De Gouden Eeuw*, Amsterdam: Rijksmuseum, 2003 참조.

그는 열성적인 칼빈주의자인 동시에 기업가로서 경건한 삶과 위엄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의 운하(Keizergracht)에 있는 소이히어가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여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수입한 값비싼 가구로 장식했다. 그러나 그 대신, 십일조를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의 자선 사업은 널리 알려졌으며 30년 전쟁으로 중부 유럽에서 온 칼빈주의자 피난민들을 많이 도왔다. 1646년에 그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Schama, 1987: 334-35).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주의는 검소, 질서의식, 성실성 및 절제를 강조하여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하이마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한다(Hyma, 1938: 81-156). 가령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 Verre Oost Compagnie, East India Company)는 1602년에 최초의 다국적기업으로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거의 2세기 동안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회사가 되었다. 나아가 최초의 증권시장이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런던 증시보다 100년이나 앞선 것이다. 당시에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유럽의 재정 센터가 되었다. 나아가 1621년 네덜란드의 서인도회사(GWC: Geoctroyeerde Westindische Compagnie, West India Company)도 설립되어 북미주 및 카리브 해 지역에 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은 17세기에 명실상부한 유럽 경제의 수도가 되었다. 이렇게 네덜란드 공화국이 경제적 문화적 번성을 누렸지만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칼빈주의적 세계관은 계속해서 성경적인 근면,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가사일도 경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저명한 기독교 경제학자인 밥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는 이렇게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를 쉽게 연결시키는 단순한 관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칼빈을 정직하게 이해한다면 ‘사랑’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우즈바르트는 에밀 두메르그(Emil Doumergue)를 인용하면서 사랑의 계명 없이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것은 마치 기계에서 모든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이자 받는 것을 말하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인류를 위한 지구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목적을 말하며, 새로운 질서를 말할 때, 사랑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모든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밸브와 브레이크를 제거하지 않는 한에서만 우리는 경제적인 삶의 추진 동력으로서 “칼빈주의”와 그 결과 경제 제도의 자본주의적인 방향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는 본다. 따라서 하우즈바르트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칼빈 자신의 생각과 이후 추종자들의 사상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도 하우즈바르트의 입장에 동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네덜란드 공화국의 형성 및 그 이후 황금시대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얀 드 프리스(Jan de Vries)와 아드 반 데어 바우드(Ad van der Woude) 또한 네덜란드

8) Bob Goudzwaard, “ECONOMIC STEWARDSHIP VERSUS CAPITALIST RELIGION”, <http://www.allofliferedeemed.co.uk/Goudzwaard/BG13.pdf> 2013년 7월 5일 오후 1:31에 접속함.

공화국 당시의 상황이 나중에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간의 관계를 밝히려했던 특징들을 분명히 보이지 않았고 독특한 개혁주의 신학의 형태를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칼빈주의적 경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제기했으나 둘 다 칼빈주의가 국가의 구조, 문화적 공헌, 부동산의 생산적인 사용 및 교육에 대한 헌신 등으로 어느 정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한다(De Vries & Van der Woude, 1997: 172). 나아가 실링은 많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피난민들은 상공인 및 기업가들로 독일의 북서부인 라인란드(Rheinland) 지방으로 이주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을 전통적인 도시 시민 사회에서 근대적인 부르주아적 사회로 탈바꿈시켰음을 지적한다(Schilling, 1994: 321-33).

3. 칼빈주의와 유럽에서의 네덜란드 기업가정신

현대적 상황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 및 고용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치 데일리 뉴스(Dutch daily news)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⁹⁾ 가령 18-64세의 네덜란드인들 중 7.2%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유럽에서 1위이다.¹⁰⁾ 네덜란드 남부 헬렌(Heerlen)에서 대학교수로 가르치다 은퇴한 요스 헤르만스(Jos Hermans) 교수는 지난 2013년 1월 18일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남부 유럽의 기업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만일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소개할 경우, 그 반응은 다음과 같이 다를 것이다: 독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먼저 당신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가령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조직과 시간 계획은 어떤지, 부차적인 과업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이다. 인터뷰 마지막에 당신의 가능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이 들 경우에만 참여한다. 진정한 혁신은 그 결과가 확실하고 성공이 보장되며 그 품질이 100%일 때에만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거의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에는 능력이나 품질,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새롭기 때문이다. 이렇듯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 네덜란드 사람들의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는 숫자는 놀랄 만하다.

만일 당신이 남부 유럽(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및 프랑스)에서 온 기업가들과 만난다면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프로젝트를 제외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식사가 끝날 때 본론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본론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위험 부담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도전들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지만 다른 유럽의 국

9) <http://www.internationalentrepreneurship.com/europe/netherlands> 2013년 7월 8일 오후 4:02에 접속함.

10) Ibid.

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바로 거기에 뛰어드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Cf. Schurings, 2003).

나아가 헤르만스는 네덜란드의 혁신 정신 및 도전적 기업가정신이 발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가 작으면서도 라인강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라인강을 따라 전 세계에서 유럽으로 오는 모든 물품들의 관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무역 활동을 통해 수백 년간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항구들은 제품, 자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및 역사가 공존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민족들 간의 차이에 대해 거의 개의치 않았으며 윤리적인 문제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매우 ‘관용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그것이 또 하나의 국민성이 된 것이다.

네덜란드 기업가정신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은 모든 고용 및 생산성의 거의 90%가 네덜란드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Shell, Unilever, Philips, KLM, 등 거대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은 자기 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본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 및 네덜란드 여러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생산 혁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종종 전통적인 분야들을 연결시킨다. 가령, 엔지니어와 경제 또는 현대 예술과 심리학 등을 연결시킨다.¹¹⁾

나아가 주목할 사실은 영국의 BBC 리포트에 의하면 최근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가치와 노동 그리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를 더욱 부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¹²⁾ 가령 루벤 반 즈비텐 (Ruben van Zwieten)은 암스테르담 남부 재정 중심지역에 있는 토마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이면서 취업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스트레스를 덜어주면서 영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가령 밸런타인데이에는 200여명의 젊은 전문 직장인들이 자기 구역의 노인들과 “데이트”를 하도록 추천했는데 ABN-AMRO 은행에서 근무하는 35세의 직원이 88세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다 온 후 이 은행원은 나중에 루벤에게 “오늘 나는 좀 더 인간임을 느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¹³⁾

기독교 연합당의 지도자인 요엘 포르드빈트(Joel Voordewind)도 “매우 폭넓은 기독교적 도덕관이 다시 네덜란드에서 부활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이것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 실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정부는 우리 경제를 좀 더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만들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¹⁴⁾ 요컨대 칼빈주의는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과 기업가들에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칼빈주의와 미국에서의 네덜란드 기업가정신

11) 네덜란드 기업가정신에 관한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www.ondernemerschap.nl (네덜란드어) 및 www.entrepreneurship-sme.eu (영어) 참조.

12) <http://news.bbc.co.uk/2/hi/8140821.stm> 2013년 7월 2일 오전 8:54에 검색함.

13) Ibid.

14) Ibid.

미국에서도 특히 미시간 서부 지역에는 암웨이(Amway Corporation), 메이어 수퍼스토어(Meijer Superstore), 프린스 제조(Prince Manufacturing) 및 헤르만 밀러(Herman Miller) 가구회사, 등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이 세운 기업들이 많이 있다(Ester, 2011, Cf. Pegels, 2011)). 이들은 모두 올바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있다. 나아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기업가들 대부분이 헌신적인 개신교도들이며 특히 직업윤리(소명의식), 청지기 직분, 검소, 절약하는 생활양식,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책임감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 등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다(Ester, 2011: 2). 나아가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은 칼빈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공장일, 높은 신용도 및 책임감으로 계급간의 갈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Van Hinte, 1928: 775). 가령 암웨이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던 반 안델(Jay Van Andel)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의 칼빈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나는 우리의 일이 소명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수입 수준이나 교육, 가정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Van Andel, 1998: 20).

미시간 서부 지역의 칼빈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들이 된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통계를 내면서 깊이 연구한 피터 에스더(Peter Ester) 교수에 의하면 네덜란드계 미국인 기업가들은 그들의 성공을 책임의식, 훈련, 열심히 일하는 정신, 신용, 정직 및 공평이라는 개혁주의적 가치와 원리들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Ester, 2011, 58). 그는 개혁주의적 교육의 기초가 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 및 생활양식이 그들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는...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에게는 서로 매우 가까운 친구사이다. 교리, 세계관 등의 측면에서 기본 전제는 양자가 함께 잘 조화된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기업가정신의 탁월성은 칼빈주의 정신과 네덜란드계 미국인의 유산이 지지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독특한 문화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다.”(Ester, 2011: 37)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칼빈주의와 네덜란드계 미국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기업가 정신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칼빈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기업가정신

막스 베버는 저명한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1904년에 최초로 출판된 그의 명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에서 유럽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신교의 노동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및 기업가정신을 꽃피우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가장 자본주의 기업가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리적이고 절제된 “자유노동” 조합이며 자본 투자의 합리화(regularization of capital investment)라고 보았다(Weber, 1904: 17). 따라서 기업가정신 및 경제 발전은 그 자체로 옳다고 본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결국 욕심이나 쾌락 또는 향락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세속적 성공을 덕과 신적 선택의 사인으로 인정하는 칼빈주의적 노동 윤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또한 “이 세상에서의 금욕주의(innerweltliche Askese)”를 강조했는데 이는 매우 검소하고 절약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 메노나이트들, 감리교도들 그리고 침례교도들 등과 같은 청교도들은 질서, 근면(시간은 돈이다), 열심히 일함, 절약, 시간 엄수 및 정직(신용은 돈이다), 훈련, 절제, 저축(불필요한 일에 돈을 낭비하

지 않음), 세심한 계산, 돈을 신중히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Weber, 1904: 18-19). 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의무이며 경제적인 성공은 그러한 소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의 축적은 죄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한 생활과 함께 도덕적으로 축복이라고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베버는 금욕적(쾌락 내지 향락주의를 배척함)이고 기업가 정신적 가치(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추구함)를 조합한 것이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하우트바르트의 보다 신중한 입장도 살펴보았지만 가령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샤마(Schama)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를 분석하면서 레이든(Leiden)의 직물 기업가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여 비교적 베버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chama, 1987: 340-41). 라이드(W.S. Reid)도 칼빈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 후 칼빈이 당시에 자본주의가 유럽의 일반적인 확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그것을 “사랑, 정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신적인 조건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즉, 칼빈도 검소, 근면 그리고 분별력을 강조했으나 “동시에 그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한“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드는 칼빈이 자본주의를 제한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Reid, 1992: 170). 칼 홀(Karl Holl)도 이런 의미에서 베버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한다. 즉 “순수한 칼빈주의가 아니라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적 노력“의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것도 미국 식민지 토양에서만 제대로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Holl, 1959: 89).

따라서 우리는 베버의 명제가 항상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기업가정신을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도 자본주의와 기업가 문화에 새로운 영향을 준 것은 칼빈의 사상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McGrath, 1990: 25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에스터 교수도 이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귀하게 여기면서 크게 성공한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칼빈주의와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 및 기업가정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 개괄해보면¹⁵⁾ 1960년대에는 수출주도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내실을 다진 후 1990년대에는 경제개방과 자율화 과정을 겪다가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당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지만, 이를 통해 부실기업들이 정리되고, 부채 의존형 경제체제가 개선되어,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2010년 현재 GDP 면에서 세계 14위의 위상을 나타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

15)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outh_Korea 2013년 7월 9일 오후 4:05에 접속함.

다. 즉 1987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 3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만들었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원조공여국이 되었고 2009년에는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김승욱, 2012: 96-102).

한국의 경제가 이토록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 김승욱 교수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한국 경제가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수준 높고 탁월한 노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승욱, 2012: 106-108). 첫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와, 두 번째 이유는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있다면 마지막 이유는 한국의 칼빈주의적 전통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자본주의 초창기에 기업가정신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경제 개발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 기간은 한국 교회의 급속한 발전 기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주류는 칼빈주의적 전통을 가진 장로교회이다. 따라서 이 두 현상을 연결해보면 우리는 칼빈주의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욱 교수는 한국 교회가 매우 탁월한 고급 인력을 미리 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공헌하였다고 주장한다(김승욱, 2012: 107-108). 필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먼저 학교들을 세워 미래의 인재들을 키웠기 때문이다(최용준, 2013: 63-64).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근대화된 일본에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과거의 인습적인 사고 및 생활방식을 버리고 근대화를 위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기독교인들도 한국 사회 개화의 수단으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서양의 과학 및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근대 교육 커리큘럼이 소개되었다. 초기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개화, 교육 및 종교를 하나로 보았으며 기독교만이 한국사회와 문화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에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많은 학교들을 세워 인재를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에서 대학과정까지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춘 곳은 이곳밖에 없었다. 과거의 유교적 교육 제도는 쇠퇴하였으며 일제 또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어 놓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그 때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들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곳에서 배출된 엘리트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지도자들로 큰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최용준, 2013: 64). 이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도 황금시대에 인재들을 육성했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기간에도 한국 장로교회에 의해 칼빈주의적 노동 윤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한국 근로자들은 매우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했다. 나아가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며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여 국제 무역 및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칼빈주의적 정신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로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각자의 분양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제가 발

전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적인 스캔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지금도 정치권과 재벌들 간의 부패 및 탈세 스캔들이 언론에 자주 폭로되고 있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규범적인 요소들보다는 현세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사머니즘적 세계관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세계관은 한국 교회 내에도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칼빈주의가 한국의 경제 및 기업가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적 기업가정신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은 전자가 후자의 근본 동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불가분리적이다. 칼빈주의적 세계관 특히 도덕과 가치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면서 네덜란드의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이해하였기에 노동자들은 정직하면서도 부지런히 일하였고 나아가, 기업가들도 자신의 기업을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이해하여 겸손하면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여 모든 일에 정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봉사적 태도는 당연히 허세와 사치를 지양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발전시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도 좋아했던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 분의 문화적 대리인으로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세계관 및 인간관을 가진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기업에 더 창조적이면서도 혁신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전형적인 하나의 예로 풍차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인들은 국토가 바다보다 낮으며 날씨가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 현실을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변혁시켜 나가 그 결과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풍차를 발명하게 된 것이다(최용준, 2011: 23-27). 이러한 사실은 현대 유럽 및 국제 무역에서 네덜란드가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 미시간 서부로 대량 이주했던 네덜란드계 미국 기업가들의 칼빈주의적 정신을 분석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상황도 급속한 경제 성장이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대라는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칼빈주의적 정신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칼빈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을 보다 깊이 참고하여 미래의 발전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기업가들이 이러한 점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감당하여 보다 성숙하고 존경받는 대안적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욱 (2012). “기독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손봉호, 조성표 편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 91-124.
- 최용준 (2011). 『하나님이 원하시면 (Deo Volente)』 서울: 아침향기.
- _____ (2013). “개혁주의 세계관과 한국 사회”, 『월간 목회』 60-69.
- Beins, Ernst (1931). “Die Wirtschaftsethik der Calvinistischen Kirche der Niederlande 1565-1650“, *Nederlandsche archief vor kerkgeschiedenis* in N.S., XXIV, 81-156.
- Crew, Phyllis Mack (1978). *Calvinist Preaching and Iconoclasm in the Netherlands 1544-156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avele, J (1975). *De dageraad van de Reformatie in Vlaanderen*, 2 vols. Brussels.
- DeVos, Richard M. De Vries, J. en Van der Woude (1997). A.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 De Vries, J. en Van der Woude, A (1997).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Cambridge.
- Ester, Peter (2012). *Faith, Family, and Fortune: Reformed Upbringing and Calvinist Values of Highly Successful Dutch-American Entrepreneurs*, Holland: Van raalte.
- Goudzwaard, Bob. “ECONOMIC STEWARDSHIP VERSUS CAPITALIST RELIGION”, <http://www.allofliferedeemed.co.uk/Goudzwaard/BG13.pdf>.
- Holl, Karl (1959).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Meridian Books.
- Huizinga, J (1941). *Nederlands beschaving in de zeventiende eeuw*
- Hyma, Albert (1938). “Calvinism and capitalism in the Netherlands, 1555-1700”,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Sep. 1938, Vol. X, Number 3, 325. <http://www.jstor.org/stable/1899418?seq=5>.
- Israel, Jonathan I. (1989).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1585-1740*, Oxford: Clarendon.
- _____. (1995).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Oxford,
- McGrath, Alister E (1990).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lackwell.
- Noordervliet, Nelleke (2004). *Nederland In De Gouden Eeuw*, Wbooks.
- Prak, M. (2002). *Gouden Eeuw. Het raadsel van de Republiek*, Nijmegen: Sun.
- Pettegree, Andrew. Ed. (2000) *The Reformation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eid, W. Stanford (1992). “John Calvin, Early Critic of Capitalism (II)”,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XLIII. Richard Gamble, ed. *Calvin's thought on economic and social issues and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state*, New York: Garland Pub.
- Schama, Simon (1987) *The Embarrassment of Riches: An Interpretation of Dutch Culture in the Golden Age*, New York: Alfred Knopf.
- Schilling, Heinz. *Confessional Migration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the Dutch Refugees of the Sixteenth Century*.
- Schurings, Ute (2003). *Zwischen Pommes und Pralinen*, Agenda Verlag: Auflage 1.
- Swierenga, Robert P. (2002). *Dutch Chicago: a history of the Hollanders in the Windy City* Grand Rapids, Mich.: A.C. Van Raalte Institute, Hope College.
- Van Anandel, Jay (1998). *An Enterprising Life: An Autobiography*, New York: Harper Collins.
- Van Hinte, Jacob (1928). *Nederlanders in America*, Groningen: Noordhof.
- Walker, P.C. Gordon (1972). “Capitalism and the Reformation” Lewis W. Spitz, ed. *The Reformation: Basic Interpretations*, Lexington, Mass.: Heath.
- Weber, Max (193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übingen: J.C.B. Moh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alcott Parsons, (New York: Scribner 1958.
- Weber, Max, Peter R. Baehr; Gordon C. Wells (2011).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other writings*, Penguin.
-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outh_Korea
- http://www.expatica.com/nl/news/news_focus/The-Netherlands-The-most-Calvinist-nation-in-the-world-14301.html
- <http://www.internationalentrepreneurship.com/europe/netherlands>
- <http://www.dutchdailynews.com/most-entrepreneurial-country-in-eu>
- <http://www.ondernemerschap.nl>, <http://www.entrepreneurship-sme>
- <http://news.bbc.co.uk/2/hi/8140821.stm>

ABSTRACT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The Netherlands can be called as the country where Calvinism has been developed not merely as a theological theory but as a life-system in which Calvin's thought has been applied to various spheres of life. Among them, the so-called 'trading spirit(Handelsgeest)' of the Dutch protestant, especially Calvinistic, christians played the crucial role in achieving the independence from the oppression of Spain and in introducing the Golden Age of the 17th century. Even until now, the Dutch entrepreneurship based in Calvinism is so competitive in Europe, America and the rest parts of the world. This article, after discussing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investigates the role of Calvinism at the era of Golden Age in the 17th century. It furth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America, especially West-Michigan. After that, the famous thesis of Max Weber will be critically examined and evaluated. Finally, I will check out whether the same thing can be said to the Korean context. Then a conclusion will be drawn from all the preceding discussions.

Key Words: Calvinism, the Netherlands, entrepreneurship, Max Weber, work ethic.